

김관영 지사, “정부 후속 조치 적극 대응”

호우 피해 현장 점검·피해복구 총력 대응 등 강조...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유치 노고 격려도

김관영 지사(사진)는 지난 21일 간부회의를 통해 도정 주요현안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간부회의의 시작과 함께 폭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20일 발표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성공 쾌거에 대해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 실국·도정책성의 자세로 새로운 도전과 성공의 길로 계속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상반기 내 밤낮없이 업무

를 추진한 직원들의 노고를 크게 치하했으며, 특화단지 유체에 열정적으로 참여한 전문가 그룹, 국회의원, 기업인, 유관기관 등 관계자들에게 충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특화단지가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력양성과 연구개발(R&D) 등 후속조치가 중요하므로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재난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고 체수준 상병과 유가족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함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체일병의 빈소가 있는 포항에 갈 것이라 밝힌다.

재난대응과 관련해서는 익산 김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의 피해상황이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재난지역 현장 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전반적인 피해 상황을 재점검하고 동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해예방 예산 확보와 피해복구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세계챔버리가 10일 앞으로 다가오며, 다음주 챔버리 기반기설과 배수대책을 완결하고,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춰 마지막까지 준비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작물 호우 피해 발생에 따라 방사물과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합인쿠폰 등 정부지원 혜택을 많은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

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도와 시군·국회의원실 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예산 확보의 삼각공조를 확실히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역 중심 분산형 발전으로 전환이 예상되므로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의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하자고 덧붙였다.

/김재훈기자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지난 21일 (주)팜조아 농업회사법인을 방문했다.

김중훈 경제부지사, 팜조아 방문

중진공 15억원 투자유치 격려·애로사항 등 청취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지난 21일 (주)팜조아 농업회사법인(대표이사 황은경)을 직접 방문했다. 이날 김 부지사는 (주)팜조아에서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소분고기 5,000세트를 전달받고, 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또한 최근 (주)팜조아가 개별급속 냉동(QF) 특허 기술력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5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낸 점도 격려했다.

(주)팜조아는 기존 상용되는 냉동 채소와는 달리 개별급속 냉동(QF) 기술로 제품 품질이 대폭 향상된 소재 개발 기술력을 인정받아 중진공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황은경 대표이사는 “이번 중진공 투자유치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가능성 개별급속 냉동(QF) 제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며, “개발한 기술로 고부가 가치 산업을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식품 소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서 김 부지사는 황은경 대표이사 등 기업 관계자와 간담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황은경 대표이사는 “기업의 애로사항은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통해 전담 공무원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술사 문제, 출퇴근버스 운영의 어려움이 있지만 LH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정책을 전담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고 함께 해결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주)팜조아와 같은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이 전라북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해결 방안 마련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간담회 후 공장시설을 둘러보며,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보

/김재훈기자

공공갈등 체계적 관리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출범

전북도, 각계 전문가 등 20명 위촉... 예방·조정 관리기구 역할

전북도는 도내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전라북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2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내 다양하게 나타나는 공공갈등에 대응해 과도한 사회적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그 동안은 당사자 신중주의 규정 등으로 도의 역할이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북도는 올해 5월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직권에 의한 위원회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 전문가, 환경, 도시개발, 언론 법조, 시민단체, 지방의원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며, 전라북도 공공갈등 관리 종합계획(안), 공공갈등사항 관리대상 지정 및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방안에 대해 심의했으며, 위원장으로 신효근 군산대학교 석좌교수를 선출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갈등의 시간, 성격, 규모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 사안을 선정하고, 갈등 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으로 써 진행중인 갈등을 포함해 앞으로 갈등이 예상되는 시간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심의회에서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된 분쟁 사안의 공공갈등 관리대상 지정 여부, 사안별



전북도는 도내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전라북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2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방안 및 목적조 수변개발 사업의 상생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추후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갈등의 발생을 부정적으로만 보기보다는 갈등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만, 갈등관리의 성과에 따라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공공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행정의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전북도자원봉사센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가동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익산·진안·무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현장운영과 긴급 복구지원활동을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긴급 복구지원에 산북천 일대 인 망성·용안·황등면 등 침수농가 및 도로, 하천정비를 위해 35시간 국군장병들이 복구현장에 투입됨에 따라

익산·진안·무주 특별재난지역(익산·진안·무주)을 주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내비위성지성당(망성면)에 가동해 피해현황 조사와 접수, 복구지원 등 현장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현장 복구 등 대민지원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군장병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도센터(5분), 익산·진안·무주센터(3.5분), 전주연탄은행(3.5분)의 이동

급식차량을 운영, 현장에서 음식을 조리해 제공하는 등 복구활동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영호 전북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도내에 발생한 호우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복구를 위해 재난현장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가동해 체계적 수해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양식 익산·진안·무주지원단 이사장은 “호우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익산·진안·무주 주민들에게 응원과 자원봉사 참여에

감사드리며, 주민들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자원봉사센터는 시군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자원봉사 지원을 위해 재난현장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가동해 체계적 수해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전북도, 집중호우 이후 물놀이 관리지역 특별안전점검

전북도는 집중호우 이후 본격적인 물놀이 성수기(휴가, 방학철)를 대비해,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관리 등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도내에는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등 10개 시·군에서 113개소의 물놀이 지역(관리지역 79, 위험구역 34)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 지역의 물놀이 관리지역 위주로 실시해, 도·시·군·유관기관과 표본 특별안전점검을 실시

하고 대상의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 전수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안전점검의 주요 내용은 안전시설 설치·관리 실태 전반,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장마철 이후 계속·하천 등에 본격적인 물놀이객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시·군과 협력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도민과 이용객이 안심하고 물놀이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모 집 우석대, 전주교육대, 전북과학대, 원광대, 군산대, 남원평생스피치웃음코칭과정 모집

스피치·긴장해소·웃음코칭·리더쉽, 면접

◎모집대상: 대학, 일반인 남녀 누구나 ◎매주 1회 수업(주산, 야산)
◎등록방법: 전화접수, 팩스접수, 방문접수 가능
◎전화: 063-285-6676, 010-7304-5665

※7월~8월 과정은 우석대, 원광대에서 강의함
※2학기 모집은 수시로 하며 9월 개강합니다.
※개인지도: 면접, 연설, 웅변, 시낭송, 인사말 등 상담 환영

김양욱 (사)한국스피치웃음협회 전북본부 회장이 직접 지도함.

환 영 장수군 천천면 금강다슬기축제를 위한 제1회 천천사랑 전국 트로트가요제

금강의 상류 청정지역 장수군 천천에서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관광홍보 지역주민의 풍요로운 삶에 이바지하는 가요제에 참가를 기원합니다.

①일시 : 2023년 8월 12일(토) 오전 10시에선, 본선 오후 4시30분
②장소 : 장수군 천천면 춘송길 11, 축제특설무대
③주최 :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전북본부
④주관 :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전북장수군지부
⑤참고 : 본 대회는 각 전국대회에서 대상(1등) 수상자는 제외함
⑥접수 문의 : (063)231-6669, 010-7304-5665, 010-4658-8198
⑦참가자는 일만원 경비 납부요망 (접수자는 안내함)

전북회장 김양욱, 장수군지부장 김을만(장수군민) 올림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